

암 관리 체계구축 -일 시 지역을 중심으로-

김분한(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), 정 연(한양대학교 간호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)

[연구목적] 본 연구는 지역사회 단위의 암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1차 년도 사업으로 시 단위의 암환자 파악 관리 및 암환자 관리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, 암환자와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하여 암환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암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.

[연구기간] 2000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 간이었으며, 경기도의 일개 중소도시를 연구대상지역으로 하였다.

[연구대상] 암환자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은 6월에 1회, 2일간에 걸쳐 80명에게 실시하였으며, 교육효과와 자원봉사 지원 동기 등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.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았으며, 좀 더 많은 시간의 교육과 심화교육이 필요하며, 지속적인 심화교육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자원봉사단의 구성이 필요함이 제기되었다. 그 결과, 보건소와 자원봉사자들의 협의를 거쳐 4개팀, 26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조직하고 10월에 발대식을 가진 후 암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실시하였다.

[연구도구] 암환자 발굴 및 등록을 위하여 시 지역정보지를 통한 홍보, 지역사회 병의원을 통한 등록, 통·반장 및 지역사회 관련 단체(부녀회 등)담당자 교육을 통한 홍보, 한양대 간호학과 학생봉사단의 지역사회 조사 및 자원봉사단의 지역사회 조사를 실시하여 총 41명의 암환자가 등록하였다.

[연구결과] 등록된 대상지역사회 암환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자가 24명(58.5%)이었으며, 연령별로는 61~70세가 10명(24.3%)로 가장 많았으며, 진단별로는 위암이 8명(19.5%)로 가장 많았다.

암환자 관리는 지역사회 암 관리 자원봉사단과 한양대학교 학생봉사단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졌다. 지역사회 봉사단은 23명이 87회의 활동을 하여 자원봉사자 1인당 평균 3.8회의 활동하였다. 활동내용별로는 교육참여가 41.4%로 가장 많았으며, 암환자 상담 및 가정방문이 25.3%의 순으로 이루어졌다. 학생봉사단의 활동은 12명이 135회의 활동을 하여 1인당 평균 11.3회의 활동을 하였다. 활동내용별로는 암환자 상담 및 가정방문이 37.8%이었으며, 암환자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조사가 62.2%이었다.

[결론 및 제언] 본 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 단위의 암 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선도적인 시도를 함으로써 그 초석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, 특히 지역사회에서 자치적으로 암환자 관리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암환자 및 가족들을 위한 활동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본 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.

앞으로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단의 지속적인 관리와 계속교육 또는 심화교육이 필요하며, 더 많은 암환자의 발굴을 위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및 교육을 통하여 암 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며, 이를 위해서는 행정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된다.